

조선어 《형태》부사와 그 몇가지 특징

정 래 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우리 말은 류창하고 아름다운 발음과 풍부한 어휘의미, 치밀한 문법구조와 세련된 문체로 하여 그 우수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언어이다.

우수한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언어생활에 정확히 활용해나가는 데서 품사에 대한 리해는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관형사와 함께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사들가운데서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부사(《형태》부사)를 대상으로 그 몇가지 특징을 서술하려고 한다.

8품사체계를 가지는 우리 말에서 부사는 체언이나 용언과 달리 일반적으로 형태변화 체계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관형사, 감동사 등과 함께 《무형태어》부류속에 들어간다. 다시말하여 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말 품사체계에서 《무형태어》 즉 형태를 가지지 않는 단어부류이다. 그런데 언어실천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말 부사가운데는 《무형태》로 쓰이는 부사들이 절대다수로 많은 반면에 단어의 일정한 《형태》가 굳어진 상태로 쓰이는 부사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런 경우를 《〈형태〉부사》라고 명명하고 다룬다.

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단숨에 뚫고나가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이다.

시에에는 새로 버섯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일반적으로 형태론에서 《형태》는 일정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맺는 여러 문법적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취하는 단어의 겉모양을 가리키며 따라서 이것은 흔히 《단어형태》(어형), 《문법적형태》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우리 말에서 형태조성의 기본수단은 토이다.

《형태》부사라고 할 때의 《형태》는 다만 토가 붙었다는 의미에서 조건적으로 붙여쓴 용어이다.

무엇보다먼저 《형태》부사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특징을 가진다.

우선 우리 말 《형태》부사는 비록 토라는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존재하면서도 해당 단어안에서 정연한 문법적의미체계를 가지는 형태단어일반과는 달리 형태변화의 계열성을 이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형태단어들은 해당 단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이한 문법적의미체계를 가지며 따라서 정연한 형태변화의 계열성을 이루게 된다.

례; 책 - 책이	읽다 - 읽습니다
- 책을	- 읽고
- 책의	- 읽던
- 책에	- 읽도록
- 책에서	- 읽었다
- 책과	- 읽으시다
...	...

그러나 해당한 단어가 《형태》부사로 쓰일 때에는 각이한 문법적형태를 갖추지 못하며 이로부터 고정된 형태만으로 고착되어 쓰인다.

례; 단숨 + 에 (O)	때때 + 로 (O)
+ 이 (x)	+ 는 (x)
+ 을 (x)	+ 를 (x)
+ 의 (x)	+ 와 (x)

부사들가운데는 토가 없이 쓰일수도 있고 때로는 강조와 같은 여러가지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 격토, 도움토, 복수토 등을 첨가하여 쓰는 부사(실례로 《높이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전형적인 《형태》부사가 아니다.) 이때에도 제한된 토들으로써 제한된 형태만을 이룰뿐 단어의 계열적인 형태변화계열은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만 고정되어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사전뜻풀이에서 《주로 〈…〉형으로 쓰이어》라는 식으로 그 형태를 밝혀주며 이러한 단어들은 명사로부터 부사로 넘어온 《형태》부사들중에 많다.

례; 미구 [명] ① 《미구하다》의 말뿌리적단어.

② 《《미구에》형으로 부사로 쓰이어》얼마 오래지 않아.

전적 [명] ① 이런저런 판것이 없이 그대로 다인(것)

② 《《전적으로》형으로 부사로 쓰이어》이런저런 판것이 없이 그대로 모두.

결국 《형태》부사를 이루는 토들은 일정하게 해당 단어와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토로서의 본래의 문법적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형태》부사는 바탕말뿌리로 되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어휘적의미로가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의미적색채, 표현적효과가 달라지면서 《주로 용언과 관계를 맺으면서 행동이나 성질, 상태를 특징짓는》 부사로서의 품사적기능을 새롭게 가진다.

명사 《해²》와 부사 《해마다》의 대비를 통하여 이것을 설명할수 있다.

《해²》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번 도는 동안》을 의미하는 명사로서 《해가 바뀌다》, 《해묵은 소나무》 등으로 어휘적의미를 실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를 바탕말뿌리로 하고 거기에 도움토 《마다》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해마다》는 《① 편이어 지나가는 어느해에나 다》, 《② 해가 지날수록》 등의 의미를 얻은데로부터 이것은 품사로서 명사가 아니라 명백히 부사, 《형태》부사로 넘어가게 되는것이다.

례; ○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사랑은 해마다 더해만 간다.

○ 세계적인 식량사정은 해마다 어려워지고있다.

다음의 실례들도 마찬가지이다.

례; 죽다 [동] ① 목숨이 끊어지거나 생명을 잃다.

죽도록 [부] ① 있는 힘을 다하여 아득바득.

②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가혹하게.

뜻밖 [명] 뜻하지 않는것 또는 전혀 생각조차 못한것.

뜻밖에 [부] 뜻하지 않게 또는 뜻하지 않은 경우나 때에.

한마디로 《형태》(토)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당 단어의 문법적의미체계로 되지 않으며 일반화된 어휘적의미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가진 것이 《형태》부사가 가지는 가장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표식이다.

다음으로 《형태》부사는 그 구성과 류형에서 특징을 가진다.

특징은 우선 《형태》부사는 같은 품사 즉 부사로부터 만들어졌거나 다른 품사로부터 만들어졌다는것이다.

예;- 부사로부터 만들어진것

어망중 → 어망중에

참 → 참으로

정말 → 정말로

꽤 → 꽤나

장차 → 장차로

종당 → 종당에

다짜고짜 → 다짜고짜로

이것은 주로 부사로부터 《형태》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 서로 다른 품사로부터 만들어진것

○ 명사 → 《형태》부사

날 → 날로

해 → 해마다

때 → 때로(는)

억지 → 억지로

○ 대명사 → 《형태》부사

이 → 이에

저 → 저마다

언제 → 언제나

아무 → 아무도

얼마 → 얼마나

○ 동사 → 《형태》부사

그러다 →그러나

설마하다 → 설마하니

죽다 → 죽도록

줄짓다 → 줄지어

가다 → 가다가

하다 → 하거늘

힘쓰다 → 힘써

○ 형용사 → 《형태》부사

바르다 → 바로

멍하다 → 멍하니

그렇다 → 그렇듯이

이러루하다 → 이러루하니

적다 → 적어도, 적으나마

짤룩하다 → 짤룩하니

○ 관형사 → 《형태》부사

새 → 새로

별 → 별로

○ 감동사 → 《형태》부사

여봐라 →여봐란듯이

이로부터 같은 품사 즉 부사보다 다른 품사에서 《형태》부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더 많고 다양하며 또 우리 말에서 수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사에서 《형태》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징은 또한 《형태》부사를 이루는 바탕말들이 기본적으로 단순말뿌리들이며 일부 경우 《하다》형을 비롯한 합성말뿌리들이라는것이다. 《형태》부사의 바탕말로 되는 단위들은 어휘적의미에서 자립성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예; 이에, 단김에, 성심성의로, 장차로, 참으로, 억지로, 공으로, 점차로, 그리도, 또는, 아마도, 제풀에, 새로, 별로, 한것은, 죽도록, 레하면, 될수록, 툇하면, 찢하면, 하여튼간에

때문에, 절로, 실은, 자고로

특징은 또한 《형태》부사는 고유어로 된다는것이다.

우리 말에서 명사, 동사 다음으로 많은 량을 차지하고있는 부사는 기원적으로 볼 때 상징부사는 물론 다른 부사들도 그 대부분이 고유어로 이루어져있다.

비록 한자말뿌리라고 하여도 고유어뒤붙이요소들에 의하여 그것이 고유어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 례; - 히 : 극히, 감히, 열렬히, 충실히, 지극히
- 껏 : 욕심껏, 정성껏, 재간껏, 성의껏, 열성껏
- 스테 : 조심스테, 악스테, 복스테, 다정스테, 사랑스테

이것은 말뿌리가 한자말요소로 이루어진 《형태》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 례; 미구에, 부지불식간에, 즉시에, 백일하에, 일시에, 장차로, 공으로, 성심성의로, 삽시에, 미연에

특징은 또한 첨가되는 토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다는것이다.

례;①체언형태를 갖춘것

- 여격형태 : 무심결에, 미구에, 종당에, 때문에, 어망결에, 얼김에, 결김에, 제풀에, 삽시에, 순식간에, 애초에, 한결음에, 불의에
- 조격형태 : 공짜로, 장차로, 저절로, 성심성의로, 새로, 생으로, 장차로, 저리로, 정말로, 참으로, 통채로, 홀로, 억지로, 우격으로, 때로, 모로
- 도움형태 : 좀처럼, 모처럼, 제일처럼, 실은, 혹은, 판은, 또는, 적어도, 아마도, 아무래도, 하나도, 저저마다, 해마다, 저마다, 날마다, 다만, 여간만, 언제나, 아무나

②용언형태를 갖춘것

- 접속형태 : 려달아, 더붙어, 뒤미처, 이어, 그리하여, 설마하여
: 가다, 가다가, 어찌다, 어찌다, 어찌다가, 있다가
: 하기에
: 이윅고, 정녕코, 결단코, 한사코, 기필코, 기어코, 단연코, 무심코
: 한즉, 그런즉
: 그러나, 허나, 하나, 이러나저러나
: 하거늘
: 그러니, 이러루하니, 이러저러하니, 이러하니, 울먹하니, 이러니저러니
: 이를테면, 결핍하면, 어찌면, 아무러면, 하마트면, 특하면, 찍하면
: 설마한들
- 상황형태 : 저렇듯이, 그럴듯이, 그런듯이, 이런듯이, 여봐란듯이, 닭보듯이, 밥먹듯이, 불현듯, 그렇듯, 이렇듯, 저렇듯
: 될수록, 할수록
: 뻔질나게
: 죽도록, 저무도록, 되도록
- 맺음형태 : 어딘가

이것은 우리 말 《형태》부사구성에는 바탕말뿌리의 품사에 따라 체언형태인 경우에는 일부 격토와 도움토들이, 용언형태인 경우에는 일부 접속토, 상황토, 맺음토들이 참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체언형태의 부사들에는 대체로 여격로 《에》형이 가장 많고 조격로 《로/으로》형이 비교적 많으며 《만, 마다, 나, 도, 는/은, 처럼》 등의 도움토를 취한 경우는 격형태보다 훨씬 적다. 용언형태의 부사들속에는 접속형태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형태》부사들은 그 의미범위와 문법적기능에서도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의미적측면에서 볼 때 다의어보다 단의어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일부가 동의적관계에 놓인다.

《형태》부사들도 대부분이 단의적이며 다의적인 부사는 불과 수십개정도인데 다의적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통으로, 새로, 다만》 등과 같이 3~4개정도의 의미를 가진것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2가지정도의 의미를 가지고있다.

례; 통으로 [부] ① 온통 다. | 사랑방은 오빠가 ~ 차지하게 되었다.(《현대조선문학선집》3) ② 통짜 그대로. | 구렁이가 닭알을 ~ 삼키었다. ③ 근본적으로 완전히 또는 온통 다. | 세상이 ~ 뒤집힌단 얘기는 없으니깐요.(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 ④ 있는대로 다. | ~ 받아안은 행복. ~ 망신을 하다.

《형태》부사들은 문장안에서 일반부사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로 개별적인 용언들과 련계를 맺거나 때로는 이음말로 되어 단어결합과 단어결합,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보다 큰 의미적련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례; ◦ 비가 좀처럼 몇지 않았다.

◦ 하기에 오늘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을 경탄속에 바라보고있다.

《형태》부사들은 자기의 부사적기능을 가진채로 성구적인 결합에 참가하기도 한다.

례; 모로 - 모로 가나 기여 가나 서울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 모로 던저도 마름쇠.

단김에 - 단김에 소뿔빼듯.(하다)

- 소뿔은 단김에 빼라.(뽀아라)

통채로 - 통채로 삼키다.

- 통채로 삼켜도 비린내가(도) 안나겠다.

홀로 - 복은 쌍으로 안오고 화는 홀로 안온다.

-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조선어의 어휘문법적구조에 대한 보다 깊고 다방면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평양문화어를 사회주의적민족어의 본보기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